

“대금·장승·다도·택견 ... 전통문화 멋·즐거움 알려요”

동명동 '춘수공방' 권봉현·이순미 부부



춘수공방 주인장 권봉현(사진 오른쪽)·이순미씨 부부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웃고 있다.

‘쌍골죽(雙骨竹)’은 돌연변이 대나무다. 병을 앓아 양 옆으로 골이 깊게 파이고,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속만 채워 나간다. 일반적인 대나무에 비해 더 많이 휘어지기도 한다. 옛날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면 쌍골죽이 우는 소리를 내는 등 불운하다고 해서 배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병든 대나무도 대금의 재료로 쓰이면 ‘귀한 대접’을 받는다. 단단하고, 속이 꽉 차 있어 깊은 울림을 주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몸값도 비싸다. 그만큼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광주시 동구 동명로 삼거리 부근에 있는 멋스러운 한옥으로 된 ‘춘수(春水)공방’ 주인장들은 이 쌍골죽과 똑 닮은 사람들이다. 대금 등 국악관악기 제작자 권봉현(42)씨, 택견 전수자인 이순미(여·41)씨 부부는 춘수공방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

수처럼 쏟아질 정도로 열악했고, 보일러나 화장실도 없었다. 하지만 권씨는 지난 7년 동안 손수 황토를 바르고, 집을 리모델링했고, 지금의 공방과 체험장의 모습을 완성했다.

“얼마 전에는 집을 개보수 하기 위해 풍양동에 있는 아내의 택견 전수관을 정리했어요. 학생들이 120여 명이나 됐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저희 두 사람이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죠.”(권봉현)

춘수공방은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씨는 주로 국악기, 솟대, 장승 등의 제작기법을, 이씨는 떡 만들기, 다도, 택견 등을 가르친다. 프로그램은 춘수공방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성 등 전남 곳곳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남편은 대금·단소 제작기법
아내는 다도·택견 등 가르쳐
7년전 물려받은 한옥 개보수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금, 단소 등 국악 관악기, 택견 체험프로그램 등 우리 것의 멋과 즐거움을 전파하며 살아 가고 있다.

부부가 동명동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은 7년 전이다. 권씨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보급형 한옥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당시 동명동에는 갤러리 등 문화공간과 카페가 전무했다. 하지만 국악 관악기 제작자인 권씨는 예술의 거리와 가깝고, 도심 변화가 속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명동이 좋았다.

권씨와 이씨의 인연은 인근 대구(茶具)점에서 시작됐다. 차를 좋아하던 두 사람은 대구점에서 만났고, 권씨는 당시 이씨가 운영하던 택견 전수관에서 다녔고, 이씨는 권씨가 운영하는 춘수공방에서 단소를 배웠다. 말이 한옥이지 비가 오면 빗물이 폭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즉흥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즐거운 것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동네에 사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니다.”(이순미)

무형문화재 12호 고이곤 악기장에게 국악기 제작 기법을 전수받은 권씨는 국내 쌍골죽이나 오래된 활죽을 사용해 시간이 흘러도 음정이 정확하고, 변형이 없는 악기를 만들고 있다. 3년 전에는 안행부의 ‘향토핵심자원사업’에 선정됐고, 최근에는 동구청이 전통악기 대중화를 위해 동명동에 만들고 있는 체험장 겸 판매장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춘수공방은 최근에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내와 함께 우리 전통의 것과 함께 정신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산이나 들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062-226-5777.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한국무용	1 이예림(나주초2)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5.6학년 ▲은상
〈심사위원〉 김미숙(조선대 교수) 박선옥(광주여대 교수) ◇전통무용 독무 고등부 ▲금상 1 박용우(광주예고3)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1.2학년 ▲은상	1 박예은(나주초5) ◇창작무용 군무 초등부 ▲최고상 1 홍진외(6명)(나주초) ◇창작무용 독무 고등부 ▲최고상 1 김은우(광주예고3)



이강소 작 'An Island'

봄은 어떤 색깔까

갤러리 D, 30일까지 봄맞이 기획전

청아한 색으로 채색된 화폭 위를 한가롭게 떠도는 오리. 유화물감으로 그려낸 전통 문인화의 느낌이 이 작품 속에 담긴 봄은 어떤 색깔까. 봄을 만드는 색들이 전시장을 채색하고 있다.

갤러리 D는 오는 30일까지 ‘봄은 색(色)이다’를 주제로 봄맞이 기획전을 연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나무가 새싹을 피워내며 숲을 물들이는 색,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만들어내는 색, 생명이 피어나면서 대지를 바꾸는 색 등 봄에 만날 수 있는 색들이 가득한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다. 작품들은 물의 색, 꽃의 색, 숲의 색 등으로 구분돼 전시되고 있다.

자연을 담백하고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양계남 교수의 작품, 맑고 투명함 청색이 서로 스며들고 번져나가 이루어낸 다양한 공감각적 심상을 느끼게 하는 강운작가 작품, 몽환적인 분위기와 운율적인 색채가 가득한 진원장 교수 작품, 밝고 부드러운 색채와 단순한 도상으로 평화로운 나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동한 작가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명-제의



자아의 형성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66번째 김원중 달거리공연

28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봄처럼 짧게 쓰러져간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66번째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돕기 위한 공연으로 마련된다.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4월 달거리 공연 주제는 ‘봄이 너무 짧습니다’.

봄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올리는 마음을 담아, 마음의 평화를 소망하는 노래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수익금은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전액 쓰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김원중(가수)씨와 박의혁(Classic&Jazz감독)씨, 광주알핀로

제요들클럽, 주홍(sand Animation)씨, 바다프로젝트(임웅·김영훈·김현무), 느티나무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가 함께한다. 또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공연을 담을 예정이다.

무대는 이달의 화가로 선정된 서병욱씨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서씨는 광주비엔날레 청년작가초대전 등 200여차례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규암 임장원 선비정신 되짚어보기

국립광주박물관, ‘규암 임장원...’



임장원 초상

국립광주박물관은 6월15일까지 장흥 임씨(長興 任氏) 문중의 유물을 소개하는 기증유물전 ‘규암 임장원 선비정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임장원씨가 2007·2008·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기증한 유물 146점과 최근 임광덕씨가 기증한 33점의 유물 중 장흥임씨 이십세(二十世) 손인 규암(葵庵) 임장원(任長源·1734~1804)과 관련된 유물로 꾸며진다.

임장원은 보성에서 태어나 조선 후기 이 지역의 인사로는 드물게 당상관(堂上官)까지 오른 인물이다. 특히 20여 년 가까이 정조 곁에서 직언을 올리는 간관(諫官)으로 활동했다.

전시는 규암 임장원의 발자취와 선비정신을 되짚어보는 유물 54점으로 이루어진다. 관료로서의 끈은 상경을 담은 ‘임장원 초상’에서는 그의 기개를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선비로서의 울긋은 마음가짐이 집약된 ‘침병자성잠(寢屏自省箴)’에는 ‘낮의 행실을 밤이면 점검하고, 지난 잘못을 훗날 사표로 삼는’ 자기반성의 철학이 녹아 있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

인간과 자연의 교감·순환

롯데갤러리 ‘문학열-공명 제의(祭儀)’전

광주 롯데갤러리는 지구의 날(4월22일) 주간에 맞아 5월2일까지 현대미술작가 문학열씨를 초대해 ‘문학열-공명 제의(祭儀)’전을 연다.

문씨는 이번 전시에서 완도 해안가에서 주운 도자기굽(도자기 아랫부분)과 LP레코드판을 사용해 수년 전 선보였던 인간과 자연의 교감, 또 순환을 다룬 공명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고향인 완도 해안가에서 도자기굽을 만났다. 도자기굽은 역사성이 깃든 소재로 조선 후기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발의 잔흔이다.

오래된 역사의 전형이기도 하다. 반면 레코드판은 현대적인 물성을 상징하는 소재다.

역사적 잔흔인 도자기굽, 시간의 기록임과 동시에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교감 및 증폭을 의미하는 레코드판, 즉 과거와 현대가 교차하는 매체 간의 특성에서 이번 전시의 부제인 ‘제의’의 속뜻을 만날 수 있다.

“작품에서 단순히 보여지는 시각의 한정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모든 감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작가의 바램이다.

오를랜드 대학교를 졸업한 문씨는 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1기 작가로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경제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 광양·구례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우윤근
-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효수
-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 농협광양시지부
지부장 전갑석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일동
- 광양항운노조
위원장 이정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일동
- (주)에스엔앤씨
대표이사 감학동
- 광양시교육지원청
직원일동